

CNI 공무국외출장(중국) 활동개요서  
(2019.06.02. - 2019.06.07.)

# 하북성사회과학원 정기 학술교류회 및 하북성/북경 항일유적지 등 방문

2019. 06. 02 - 06. 07

# 차 례

I. 출장 개요 .....	2
1. 출장명 .....	3
2. 방문 목적 .....	3
3. 출장 일정 및 출장자 .....	3
4. 주요 방문지역 및 기관 .....	4
5. 세부 일정 .....	4
II. 하북성 .....	5
1. 지역 개요 .....	6
2. 방문 기관 개요 .....	8
3. 주요 활동 .....	12
III. 베이징시 .....	23
1. 지역 개요 .....	24
2. 주요 활동 .....	24
부록	
중국방문 명함 정리 .....	29



## I. 출장 개요

---

1. 출장명
2. 방문 목적
3. 출장 일정 및 출장자
4. 주요 방문지역 및 기관
5. 세부 일정

# I. 출장 개요

## 1. 출 장 명

충남연구원과 하북성사회과학원 정기 학술교류회 및 하북성/북경시 항일유적지 등 방문

## 2. 출장 목적

- ▶ 충남연구원과 하북성사회과학원과의 정기 학술교류회 개최
- ▶ 양 기관 간 공동연구 주제와 방향 논의
- ▶ 하북성 소재 항일유적지 방문
- ▶ 베이징시 소재 항일유적지 방문
- ▶ 베이징시 창업거리 방문

## 3. 출장 일정 및 출장자

- ▶ 일 정
  - 2019년 6월 2일(일)-7일(금) : 5박6일
- ▶ 주요 방문도시
  - 베이징시, 하북성 석가장(石家庄)시, 한단(邯鄲)시
- ▶ 출 장 자(5명)
  - 윤황 원장
  - 오혜정 과장, 박경철 책임연구원, 이유나 행정원, 전춘복 연구원



#### 4. 주요 방문 지역 및 기관

- ▶ 베이징시: 중국의 수도
  - 활동내용: 베이징시 팔보산혁명열사릉원(정율성 선생 묘지) 등 탐방
- ▶ 석가장시: 하북성의 성도. 교통과 정치의 중심지
  - 방문기관: 하북성사회과학원, 한단시 혁명열사능원, 조선의용군 유적지
  - 활동내용:
    - 충남연구원-하북성사회과학원 간 정기학술교류회 개최
    - 충남연구원과 하북성사회과학원 간 공동연구 주제 발굴 및 논의
    - 하북성 석가장 및 한단시의 항일유적지 탐방
    - 베이징시 팔보산혁명열사릉원(정율성 선생 묘지) 등 탐방

#### 5. 세부 일정

일차	월/일	시 간	내 용	비고
1일	6월 2일 (일)	10:04→12:05 14:00→18:00	인천 → 베이징(KE 855) 베이징 → 석가장시 → 하북성사회과학원 원장 초대 만찬	석가장시 숙박
2일	6월 3일 (월)	09:00→12:30 13:30→16:30	오전: 충남연구원-하북성사과원 학술교류회 오후: 석가장시 → 한단시 이동 진기로예열사릉원 참배	한단시 숙박
3일	6월 4일 (화)	9:00→12:00 13:00→17:00	오전: 한단 조선의용군기념관 등 항일유적지 방문 중공 팔로군 유적지 방문 오후: 한단시 → 석가장시 이동	석가장시 숙박
4일	6월 5일 (수)	9:30→12:00 13:00→17:00 18:00→20:00	오전: 석가장시 항일유적지(항북평촌 4인용사묘지) 오후: 평산현 샤바이포기념관 방문 석가장시 → 북경시 이동	베이징시 숙박
5일	6월 6일 (목)	9:30→12:00 14:00→18:00	오전: 베이징시 항일유적지 방문(정율성 묘지, 아육 사 열사 순국지) 오후: 베이징시 창업거리 방문	베이징시 숙박
6일	6월 7일 (금)	13:30→16:30	오전: 귀국 준비 베이징 → 인천(KE 856)	귀국



## II. 하북성(河北省)

1. 지역 개요
2. 방문 기관 개요
3. 주요 활동

## Ⅱ. 하북성

### 1. 지역 개요

#### 1) 개황

행정구역명칭 : Hebei , 河北省(하북성)

홈페이지: [www.hebei.gov.cn](http://www.hebei.gov.cn)

성도 : 스자좡시

면적 : 187,700km<sup>2</sup>

인구 : 7,556.30만명(2018년 상주인구,  
전년대비 36.78만 명 증가 )

행정구획 : 11개 지급시, 22개 현급시,  
144개 현



중국 하북성 개황 및 지도

#### 2) 경제 현황

○ GDP: 약 36,010.3억 위안(2018년), 전년대비 6.6.% 증가

○ 1인당 GDP: 6,271불(2013년)

○ 지역 특징

- 수도인 베이징과 직할시인 텐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
- 베이징, 텐진시 및 랴오닝, 산둥성과 「환발해경제권」을 형성

#### 3) 지역 특징

화베이 지방 북부에 있는 성(省)으로 간칭(简称)은 지(冀, 기)이며 성회(省会)는 스자좡시(石家庄市, 석가장시)이다. 화베이평야 북부에서 네이멍구고원(內蒙古高原) 남동부에 걸친 지역에 위치하며 베이징시(北京市)와 텐진시(天津市)를 둘러싸고 북쪽은 랴오닝성,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서쪽으로 산시성(山西省), 남쪽으로 허난성, 산둥성과 접하고 동쪽은 보하이(渤海, 발해)에 임하여 487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서북이 높고 동남이 낮아 동남쪽으로 경사져 있다. 서북부는 주로 산지, 구릉과 고원이며 사이사이에 분지와 곡지(谷地)가 분포되어 있고 중부와 동남부는 평원지역이다. 지형은 서북부의 패상고원(坝上高原)이 평균 1,200~1,500m로 전체의 8.5%, 연산(燕山, 연산)과 타이항산(太行山, 태항산) 지역이 구릉과 분지를 포함 해발 2,000m 이하로 전체의 48.1%, 허베이평원은 50m 이하로 전체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해안선은 487.3km이며 경내에 황하(黃河), 하이하(海河), 란하(滦河) 등이 있다.

당시 연(燕)의 태자 단(太子丹)은 진왕(秦王)을 살해하기 위해 자객 형가(荊軻)를 국경선인 이수이하(易水河)에서 송별하였는데 현재의 이현(易縣)에 있는 이수(易水) 강가에는 형가탑(荊軻塔)이 남아있다. 중산(中山)은 춘추전국시기에 유일하였던 소수민족의 제후국이었으며 도성은 지금의 용수(靈壽) 경내에 위치하였다. 한단(邯鄲)은 일찍이 조(趙)의 도성으로 조무령왕(趙武靈王)이 수축한 총대(叢台)가 현재까지 남아있다. 또한 임장현(臨漳縣) 일대의 장하(漳河)는 위(魏) 나라의 서문표(西門豹)가 수축한 가장 오래된 관개시설이다.

한대(漢代)에는 허베이에 유주(幽州)와 기주(冀州)를 설치하였고 조조(曹操)가 일찍이 장하(漳河) 강변에 동작대(銅雀台)를 수축하였으며 이곳에서 아들 조식(曹植)이 동작대부(銅雀台賦)를 지었다고 전한다. 당대(唐代)에는 하북도(河北道)가 되었으며 안록산(安祿山)이 하북절도사(河北節度使)에 임명된 후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송대(宋代)에는 하북동로(河北東路)와 하북서로(河北西路)로 나뉘었으며 북부는 요(遼)에 속하여 양국 간 교전이 있었던 지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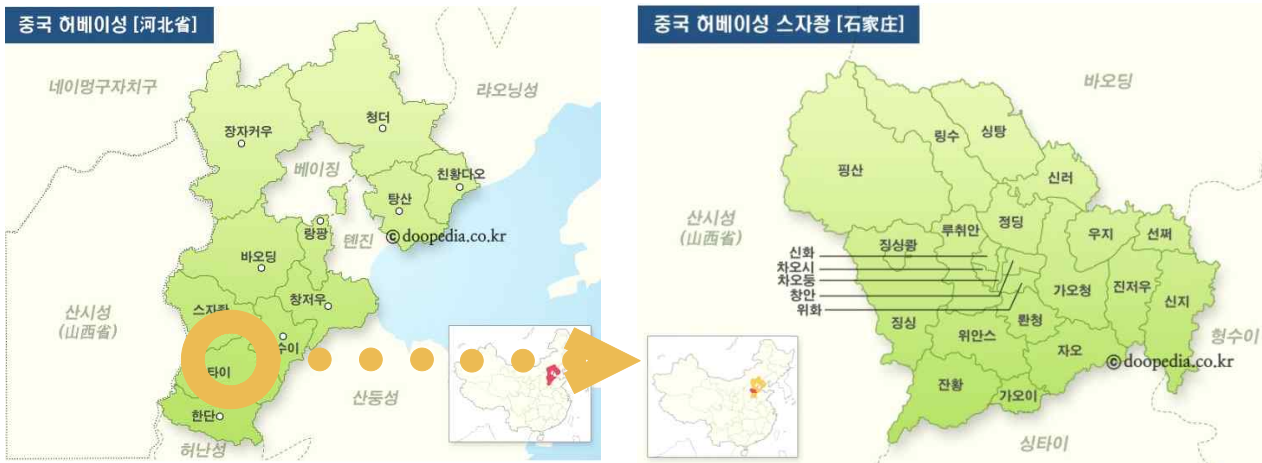
원대의 허베이 지역은 중앙 직속의 중서성(中書省)이 되었으며 명대에는 북직예성(北直隸省)으로 중앙의 직속이 되었고 청대에도 중앙직할의 직예성(直隸省)이 되었다가 신해혁명(辛亥革命) 후 1928년 허베이성(河北省)으로 개칭되었다. 중화민국시기에는 하얼빈, 러하(熱河, 열하), 허베이의 3개 성으로 분리되었고 허베이성(河北省)의 성회를 바오딩(保定)에 두었으며 현재 당시의 도독부(都督府) 유적이 있다.

신중국의 성립 후 원래의 하얼빈, 러하성의 일부가 허베이성(河北省)에 편입되었고 1958년 텐진시(天津市)도 합병하며 성회를 텐진(天津)으로 옮겼다. 1966년 텐진(天津)의 직할시 승격으로 성회는 다시 바오딩시(保定市)로 이전하였으며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기간 바오딩시가 혼란해지자 1968년 현재의 스자좡시(石家莊市, 석가장시)로 성회를 이전하였다.

[[www.hebei.gov.cn](http://www.hebei.gov.cn)] <출처: 중국행정구획총람>

## 2. 방문 기관 개요(하북성사회과학원, 河北省社會科學院)

### 1) 소재지 (석가장시(Shijiazhuang, 石家庄市))



하북성 성도 석가장(스자장)시 지도

#### ○ 일반 현황


- 면적: 14,464km<sup>2</sup>(시외포함), 2,220km<sup>2</sup>(시내),
- 인구: 1,087.99만 명(2017년)
- 행정구역: 하북성의 성도, 8구, 11현, 3현급시
- GDP: 6,082.6억 위안(2018년)

## 2) 기관개요

- 하북성 철학사회과학연구소 1963년 성립(전신)
- 1981년 하북성사회과학원으로 조직 확대
- 연구 분야 : 농촌경제, 서비스경제, 관광경제, 거시경제, 인적자원 개발 등
- 전체 인력 : 전체 직원 381명
- 연구 조직 : 경제교육연구실, 철학교육연구실, 정치문화교육 연구실, 경제연구소, 재무경제연구소, 농촌경제연구소, 언어문학연구소, 역사연구소(하북성항일전쟁 역사연구센터), 철학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정신문명건설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신문방송학연구소, 인력자원연구소(인재자원개발연구센터)

### ○ 원 장

#### \* 6/4일 저녁 원장초대 만찬

	이름 : 강전하이(康振海)	출생 년 : 1963년
	직위 : 하북성사회과학원 당조직 서기, 원장 성사회과학연합 제1 부주석	
	전공 : 철학	
	경 력 : 2017.6 ~ 하북성사회과학원 원장 2016.3 ~ 2017.6 하북성작가협회당조직서기, 부주석 2013.12~2016.3 하북성위원회선전부 부부장 ~ 외 다수	
	저서 : 《中國共產黨思想政治工作九十年》, 《艾思奇傳》, 《惲代英傳》등	

○ 부원장 6인

프로필 사진	개인 프로필
	<p>이 름 : 초우보우강, (caobaogang, 曹保刚)</p> <p>출생년 : 1960년</p> <p>직 위 : 하북성사회과학원 부원장, 하북성 법학협회 부회장</p>
	<p>이 름 : 양쓰원, (yangsiyuan, 杨思远)</p> <p>출생년 : 1960년</p> <p>직 위 : 하북성사회과학원 부원장, 하북성 차문화협회 회장</p>
	<p>이 름 : 류우웨, (liuyue, 刘月)</p> <p>출생년 : 1959년</p> <p>직 위 : 부원장</p>
	<p>이 름 : 장푸싱, (zhangfuxing, 张福兴)</p> <p>출생년 : 1962년</p> <p>직 위 : 부원장</p>
	<p>이 름 : 평젠창, (pengjianqiang, 彭建强)</p> <p>출생년 : 1966년</p>



직 위 : 하북성사회과학원 부원장, 성위원회 및 성정부 정책자문  
위원회 위원



이 름 : 자오신치, (jiaoxinqi, 焦新旗)

출생년 : 1962년

직 위 : 부원장



### 3. 주요 활동

#### 1) 충남연구원과 하북성사회과학원 간 정기 학술교류회: 6월 3일(오전)

##### ■ 학술교류회 개요

- 양 기관은 2014년 12월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충남의 환황해포럼,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및 하북성사회과학원 싱크탱크 포럼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술교류 활동을 추진해온 바 있음.
- 이번 교류회에서는 향후 양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함.

- ▷ 일 시 : 2019년 6월 3일(월) 오전 9:00-12:00
- ▷ 장 소 : 하북성사회과학원 3층 회의실
- ▷ 주 제 : 하북성사회과학원과 충남연구원 학술교류회
- ▷ 참석자 : 약 15명

충남연구원		하북성사회과학원	
원장	윤황	부원장	류웨 (刘月)
기획과장	오혜정	경제연구소 소장	천루 (陈璐)
책임연구원	박경철	경제연구센터 주임	탕빙위안 (唐丙元)
홍보담당	이유나	농촌경제소 소장	무싱펑(穆兴增)
국제교류	전춘복	역사연구소 부소장	장루이펑
		재무연구소 수석전문가	옌팅비아오 (颜廷标)
		외사처 처장	선이동
		과학연구관리처장	장홍보
		농촌경제연구소 부소장	왕춘예

##### ▷ 개최 순서

순서	주요내용	비고
9:00-9:20	개회 인사말씀	사회 : 류우웨 부원장
9:20-9:30	충남연구원 원장 답사	윤황: 충남연구원 원장
9:30-11:00	양 기관 간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충남연 발제 : 오혜정 과장 하북성사과원 발제 : 옌팅비아오 박사	사회: 류웨 부원장

	논의 : 참석자 전원	
11:00	폐회 및 단체 촬영	

## ■ 학술교류회 세부 내용

### (1) 충남연구원의 학술교류 발전방안 및 공동연구 제안 내용

#### 1 학술교류 발전 방안

##### ① 양 기관 학술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형성 및 안정화

- 정기적 학술교류회, 공동연구 아젠다 발굴을 위한 연구회 운영
- 우수 정책사례 공유뿐만 아니라 정책추진 과정 공유
- 전문가 풀(Brain POOL) 구성·운영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그 동안 양 기관은 정기학술교류회, 충청남도 황향해포럼, 3농국제포럼, 탈석탄에너지포럼, 하북성 싱크탱크포럼 등을 통해 학술교류를 진행한 만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학술교류의 안정적 기반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필요

##### ② 선도적 공동연구 프로젝트 시행

###### ▶ 공동연구 선도 프로젝트 프로세스

① 공동 기획 → ② 중점 공동연구 분야 및 과제 선정 → ③ 공동연구 과제 수행 → ④ 평가 → ⑤ 관리

- (기획, 선정) 워크숍을 통한 연구 분야 및 주제 도출 등 과제 기획, 매칭력 확보방안 마련
- (과제 수행) 공동연구 수행 및 평가, 관리
- (확산, 제안) 공동연구 결과 홍보, 확산 및 양국에의 정책제안

⇒ 국책 및 지방연구원 차원의 이러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프로세스를 갖춘 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양 기관이 협력해 이러한 연구 프로세스를 갖춘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③ 통합플랫폼 구축

- 연구 성과를 추적하고, 융·복합 분야 공동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통합 플랫폼 체계 구축
- 온라인 연구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를 교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 ④ 인력교류 기반 마련

- 교육, 초청강연, 상호연수, 방문연구 등 인력교류 기반 마련

⇒ 현재까지는 기관장 방문과 단순 학술회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향후 양 기관 교류 협력의 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연수, 방문연구 등 인력교류의 질적인 향상 도모 필요

⑤ 협업 유형별·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 협업 유형 발굴,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2** 공동연구 주제 제안(안)

- 향촌진흥: 농촌마을 집체경제, local food, 문화, 복지서비스 등
- 환경협력: 국제환경협력, 대기(미세먼지, 대기질) 및 악취, 물(하천, 저수지, 통합관리), 토양, 환경보건, 폐기물 등
- 항일역사: 양 지방정부 항일유적지 교차 탐방 및 홍보 등

⇒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년(중국 5.4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해 항일역사 관련 학술회의 추진을 건의

(2) 하북성사회과학원의 중점 연구 동향 및 공동연구 제안 내용

**1** 중점 연구 방향

① 산업 혁신 발전 연구

- 하북성은 수도권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철강, 화공, 기계 등 중화학공업이 강한 지역이었음. 그로인해 환경오염이 심해지자 최근 몇 년 동안 전통산업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사회과학원에서는 전통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창업 인큐베이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하북성사회과학원은 충남도에서 고민하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근본 문제는 산업 혁신문제와 관련한다고 보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 강화할 계획임.

② 징진지(京津冀) 연계·협력 발전 연구

- 중국은 국가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권역별 협력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하북성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직할시 중의 하나인 톈진시를 둘러싸고 있는 만큼 징진지 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보면 하북성도 낙후지역은 아니나 수도 베이징과 직할시인 톈진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와 연계한 협력 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③ 국제 무역 및 투자 분야 연구

- 하북성사회과학원은 현재 국제 창업인큐베이터, 국제적인 레저와 투자 방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음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많은 경기가 하북성 장자커우(張家口)에서 열리는 만큼 하북성에서는 올림픽 개최 기회를 활용해 레저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에

관심이 많음.

④ 향촌진흥 연구

- 농촌의 산업 발전은 노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
- 또한 농촌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향촌진흥 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연구 주제임.

⇒ 시진핑 정부도 농촌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해 향촌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북성 차원에서도 향촌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⑤ 항일 역사 연구

- 하북성과 산서성 중심으로 항일 역사 연구하고 있음.
- 연구 분야는 항일전쟁 시기 정권 수립, 무역, 경제, 교육, 의료체계 등

2 공동연구 주제 제안(안)

- 지역산업 혁신 분야: 전통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연구
- 국제 관광 및 투자 분야: 한국의 동계올림픽 경험 연구
- 향촌진흥 분야: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 연구

3 양 기관 공동연구 합의 사항

- 양 기관의 공동연구 관심 사항을 파악함.
- 양 기관에서 제안한 공동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 올 9월부터 연구사업 추진
- 충남연구원에서 하나의 주제를 먼저 제안하면 하북성사회과학원이 이에 적극 협력
- 충남연구원은 귀국 후 내부 협의를 거쳐 공동 주제를 선정 후 하북성사회과학원에 통보



학술교류 발전을 위한 양 기관 간담회



양 기관 우의증진을 위한 선물 교환



충남연구원 오혜정 기획조정 과장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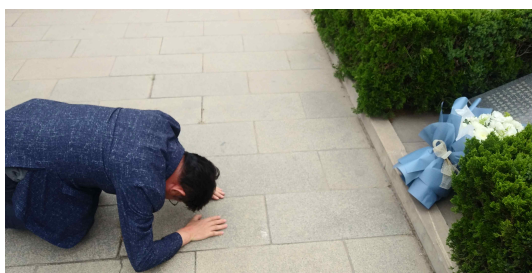


하북성사과원 엔팅비아오 박사 발제

## 2) 하북성 소재 항일유적지 탐방

### ① 한단시 진기로예열사능원(晋冀鲁豫烈士陵园)(두 명의 독립운동가 묘지)/6월 3일(오후)

- 진기로예 혁명열사릉원은 산서성, 하북성, 산둥성, 하남성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전사한 열사들을 모셔놓은 곳으로 우리나라의 대전현충원과 같은 곳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안장되어 있다.
- 열사릉원은 도로를 경계로 북쪽과 남쪽 둘로 나뉘어 있는데, 북쪽 능원에는 좌권장군의 묘가, 서편으로 진광화 동지의 묘가 있고, 남쪽 능원에는 석정 윤세주 열사의 묘가 있다. 입구에는 마오쩌둥이 쓴 “無上光榮” 혁명탑기념탑이 있다. 한중 (지방) 정부 간 우호의 상징적인 곳이다.



석정 윤세주 열사 묘 참배



진광화 열사 묘 참배

### ▶ 두 열사 소개

#### ■ 윤세주(尹世胄, 1901년 6월 24일 ~ 1942년 6월 2일)

호는 석정(石正).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세살 위인 김원봉과 같은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친 하

게 지냈으며 이후 평생 함께 독립 운동을 하는 동지가 됐다. 그는 1919년 서울에서 3·1 운동 시위에 참가한 뒤 고향에 내려와 밀양 지역 만세운동을 조직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 찰의 수배를 받았으나 중국으로 피신했다.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에서 수학하고 김원봉이 그 해 11월 결성한 의열단에 가입했다. 1938년에는 군 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고 정치위 원을 맡았다. 조선의용대에서 손꼽히는 이론가였던 그는 민족혁명당 편찬위원회 등에서 일 하다가 1941년 김원봉과 헤어져 박효삼과 함께 화북 지방으로 복상하여 팔로군과 공동으로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가했다. 1942년 40만 명의 일본군이 총공세를 벌인 태항산 전투에서 조선의용군을 총지휘하며 일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1982년 건국훈장에 추서됐다.

#### ■ 진광화(陈光华, 1911~1942. 5. 28). 평안남도 평양(平壤) 출신

평안남도 평양(平壤) 출신. 일제강점기인 1931년 평양상업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 남경 오세(五世)중학교에 입학했다. 재학 당시 한국유학생남경학생회의 간사를 맡아 활동했 다. 이후 1929년 조직된 한국혁명당 산하단체 철혈단(鐵血團)에 가입하여 기관지 《우리 길》을 발간했고 1933년에는 광저우(廣州)로 가 중산대학(中山大学)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 1941년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진기로에 지회장과 화베이지방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지도원 직책을 맡아 무장독립투쟁을 벌였다. 1942년 6월 태항산의 장자령에서 일제의 대규모 진압 군과 교전하다가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 ■ **한단시 진기로예열사능원 내 <열사기념관>**

- 한단시 진기로예열사능원 내 위치하며 기념관 내에는 이 지역의 항일투쟁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인물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전시함.
- 현재 충남도에서는 천안독립기념관 부지 내에 충남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의 한 분인 석오 이동녕 선생 등을 기념하기 위한 “백년의 집”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단시 열사기념관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됨.



열사기념관 전경



기념관 내 열사 조상





이 지역 항일열사 모두를 기록해 전시



조선의용대의 항일투쟁 역사 전시



윤세주, 진광화 열사 기록,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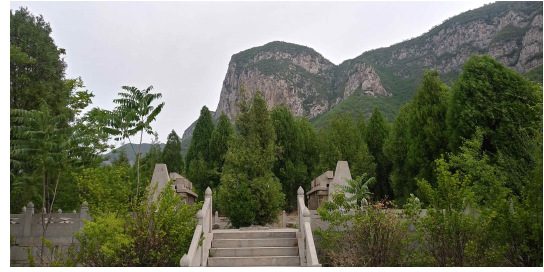
조선의용대 항일투쟁 역사 전시물 앞에서

## ② 한단시 섭현 석문촌(石門村) 조선의용군 초장지(윤세주, 진광화) 및 기념관 / 6월 4일(오전)

- 1942년 10월에 항일전투에서 희생된 조선의 두 열사(윤세주, 진광화)를 위해 조성된 묘역이다. 1942년 5월 팔로군 부참모장이었던 좌권 장군과 반소탕전 당시 전사한 진광화, 윤세주 열사가 처음 안장된 곳이다.
- 이 묘지는 당시 모택동 등 중국의 수뇌부들이 특별히 주문해 최고의 명당자리에 터를 잡고 안장했다. 두 분의 유해는 1950년 한단시 진기로예 열사능원으로 이장됐다. 묘소 인근에는 2005년 8월 15일 개관된 조선의용군열사 기념관이 있다.
- 연구원 출장자들은 사전에 준비한 제수 용품을 놓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이역만리에서 희생된 4인 열사를 위해 제를 올렸다.



진광화, 윤세주 열사 초장지 묘



두 열사의 초장지 묘 전경



조선의용군기념관 내 역사기록물

기념관내 조선의용군의 항일활동 전시물

### ③ 한단시 섭현 적안촌(赤岸村) 팔로군 129사단 유적지 / 6월 4일(오후)

- 중공 팔로군 129사단은 항일전쟁시기인 1938년에 이곳에 근거지를 두고 항일전투와 인민해방을 위해 노력했다. 인근 마전(麻田)에는 팔로군 총사령부(총사령관 朱德)가 자리하고 있고 이곳은 팔로군의 핵심 전투 부대라고 할 수 있는 129사단이 자리했다.
- 129사단에는 훗날 중국 개혁개방을 이끈 등소평이 이곳에서 정치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낳기도 했다. 팔로군은 이곳에서 항일전투를 지휘하는 한편, 인민해방을 위해 토지의 무상분배사업을 실시하기도 해 많은 인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 이곳에서 활동한 군인들은 훗날 중국을 이끈 지도자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곳은 중국 혁명의 역사에서 중요한 근거지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찾아오는 공산당 간부, 학생,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기도 하다.



등소평 등 혁명전우 동상



등소평의 사무실 겸 숙소

혁명 당시의 인물과 전쟁상황 전시



홍색관광(혁명지관광)상품점

#### ④ 석가장시 찬향현 황북평촌(黄北坪村): 4인 열사 안장지 / 6월 5일(오전)

- 태항산 제1군사령부소재지로, 일본군과의 호가장전투가 벌어져 팔로군 12명과 조선의용대 대 원(박철동, 손일봉, 최철호, 왕현순)이 전사하여 그들의 묘가 모여져 있는 곳이다.
- 당시 호가장 마을 주민은 일본군들이 그들의 묘를 훼손할 것을 염려하여 마을에 모시지 않고 호가장에서 100여 리나 떨어진 황북평촌 지역에다 모셨다. 묘지 입구에는 "조선의용군 태항산(太行山) 지구 항일전 순국선열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 연구원 출장자들은 사전에 준비한 제수 용품을 놓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이역만리에서 희생된 4인 열사를 위해 제를 올렸다.

##### ■ 최철호(崔铁镐, 1915. 6. 19~1941. 12. 12): 대전인

1935년 중국 낙양에서 혁명활동에 참가했고, 1938년 5월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특별훈련반 제6기로 졸업 후 한구지역 조선청년전선북무단과 조선의용대 제1-5전구에서 대적선전사업에 종사했다. 1940년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과 조선의용대 서안판사처(西安辦事處) 주임에 임명됐다. 1941년 조선의용대는 적후방의 혁명 무장부대를 건립키 위해 대적선전과 유격전을 치렀다. 호가장 전투 중 적탄에 전사했으며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 ■ 박철동(朴喆东, ?~1941. 12. 12): 충청북도 청원인(?)

1936년 중국 낙양 중앙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졸업했다. 193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 1935년 파견을 받고 화남으로 가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혀 규수 감옥에서 3년을 보냈다. 1939년에 낙양에서 조선의용대에 가입하여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 손일봉(孫一峯, 1912~1941. 12. 12.): 평북 의주인

1931년 중국 청도로 가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의 일원으로 반일활동에 참가했고, 상해에서 한국인 밀정을 제거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그는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투탄 의거 공모자 중 한 사람이었다. 1940년에는 민족혁명당원으로 조선의용대에 입대하여 제1지대 제1전구 사령부에, 1941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선임관으로서 하북 적후공작을 전개 중 호가장에서 산화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

국장이 추서되었다.

■ 이정순(李正淳, 1918.~1941. 12.12.): 평북 벽동인

1933년 중국 남경 의열단 간부학교인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제2기생으로 졸업했다. 그 후 의열단의 중앙당 연결 업무를 맡아 활동했고, 1936년 2월 민족혁명당 조직 검사국 의 직원으로 활동했다.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특별훈련반을 1938년 5월 졸업한 후 조선의 용대에 입대해 제2지대에 배치된 뒤 상북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 남악으로 이동, 유 격훈련을 마친 뒤 화북지방에서 임무를 수행 중 호가장에서 전사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 국장이 추서되었다.

자료출처: 중국동향과 진단(제24호), 충남연구원 발행



4인의 열사 묘지



마을주민들이 묘지 입구 양쪽에 나무를 심음



마을주민들이 묘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함

빈곤퇴치를 위한 향촌진흥 선전 포스터

⑤ 중국 혁명의 근거지 시바이포(西栢坡) / 6월 5일(오후)

- 시바이포(西栢坡) 혁명근거지는 하북성 태항산자락의 평산(平山)현에 위치한다. 이곳은 중국 공산당과 해방군이 베이징으로 진격하기 전 총본부이자 마지막 혁명 근거지였다. 또한 이곳은 중국 공산당 7차 이중(二中) 전체회의가 열렸던 곳으로 유명하다.
- 당시 공산당 및 해방군 총본부 건물은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중국 공산당은 혁명의 근거지 옌안(延安)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진격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마오쩌둥, 주더(朱德), 류샤오치, 저언라이, 런비스(任弼時), 동비우(董必武) 등 중

국 공산혁명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는 이곳으로 모여 최후의 혁명 완수를 위해 전략과 작전을 세운 곳이기도 하다.

- 중국 정부는 이곳에 시바이포기념관과 학습장을 만들어 공산혁명의 학습장으로 많은 인민들이 이곳에서 혁명시기의 활동과 정신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중국 국가 지도자들 또한 중요 권좌에 오르면 반드시 이곳을 찾아 혁명 열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산혁명의 초심을 잊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고 한다.
- 현재 이곳에는 혁명 당시의 마오쩌둥, 류샤오치, 저우언라이, 주더 등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거처했던 가옥과 해방군총부의 옛 부지가 있고 중국공산당 제7차 2중 전체회의 건물, 1948년 중공중앙 9월 회의 등이 남아있다. 시바이포는 중국 홍색관광(공산혁명유적지관광)의 대표적인 장소 중의 한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시바이포 입구: “신중국은 여기에서 출발했다”



시바이포에 모여든 중국 지도자들




당시 혁명에 참가한 지역 사람들 모습


토지개혁운동 기록물

공산당 선전 문구

시바이포 기념관 전경



### Ⅲ. 베이징시(北京市)



1. 지역 개요

2. 주요 활동

### Ⅲ. 베이징시(北京市)

#### 1. 지역 개요



중국의 위치 및 베이징지도

#### 1) 개황

- 행정구역명칭 :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Beijing, 北京)
- 홈페이지 : [www.beijing.gov.cn](http://www.beijing.gov.cn)
- 면적: 1만 6,411km<sup>2</sup>
- 인구: 2,154만명(2018년 상주인구)
- 행정구역: 14개 구, 2개 현

#### 2) 경제 현황

- GDP: 약 30,320억 위안(2018년)
- 1인당GDP: 14만 위안(2018년)
- 지역 특징
  - 3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로 역사가 깊음, 세계문화유산 7개 보유
  - 공업기반이 취약해 소비도시 성격이 강함
  - 베이징시민 상당수는 과거 왕족, 사대부들의 손이거나 공산정권의 당, 정 고위관료 또는 선택된 인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자부심이 강하고 보수적 성향
  - 중관촌 개발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경제력 향상에 집중



## 2. 주요 활동 - 베이징시 소재 항일유적지 탐방

### ① 팔보산혁명공묘(八宝山革命公墓): 정율성 선생 안장지 / 6월 6일(오전)

- 소개: 중국 최고 명성의 공원묘지
- 위치: 北京石景山区八宝山东部 长安街延长线路北
- 주요 안장 인물: 朱德, 瞿秋白, 董必武, 陈毅, 陈云, 彭德怀 등

#### ▶ 정율성(鄭律成) 선생(1918. 8. 13~1976. 12. 7)

- 전라도 광주 의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중국으로 건너와 상해, 남경 등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후에 연안으로 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통해 인민해방과 항일투쟁활동을 전개했다. 그 유명한 <중국인민해방군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선생은 해방 후 북한에 가서도 <조선인민해방군가>도 작곡을 하였는데 한 인물이 두 국가의 군가를 작곡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
- 뛰어난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은 일찍 혁명의 근거지인 연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조선의용대가 중경(重慶)에서 이곳 태항산지구로 들어오게 되자 중공중앙에서 그를 이곳으로 파견해 조선의용대의 정착과 교육훈련을 돕도록 했다. 정율성 선생은 해방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남아 연안시기 알게 된 정설송 여사와 살다가 1976년 12월 7일 베이징 인근에서 사망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매년 정율성국제음악제를 개최해 그의 항일정신을 기리고 있다.



정율성 선생 묘소

### ② 구 일본군 헌병대 사령부: 이육사 선생 순국지

- 위치: 北京市东城区王府井大街东厂胡同1号。(東廣胡同28번지)
- 화북일대를 관할한 일본군 헌병대 사령부 옛 건물이 베이징의 시내 한복판에 있다. 이곳 헌병대 사령부 부속 구치소 옛 건물에서 이육사 선생은 일제의 고문으로 순국하고 먼 친척인 이원대 열사는 총살을 당했다.
- 왕푸징이라는 베이징 최고의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이육사 선생 순국지는 조만간 재개발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한다.

▶ 이육사(李陸史) 열사(1904.4.4 13~1944.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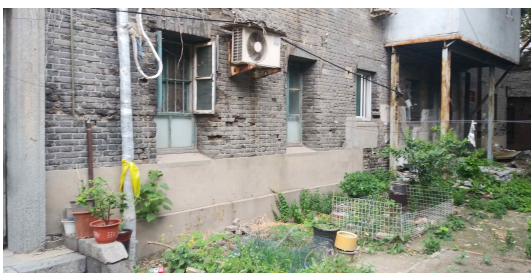
- 경북 안동에서 출생했으며 본명은 원록(源祿)이다. 대구 교남학교에서 수학하다 1925년에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해 김원봉, 윤세주 등과 활동했다. 1927년 귀국했으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되어 대구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 때의 수인번호 264를 따서 호를 ‘육사’라고 지었다고 한다. 출옥 후 다시 베이징으로 건너가 베이징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해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 중국과 조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했던 그는 1943년 고국으로 잠입해 활동을 하다 동대문 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압송되어 이곳 일본군 헌병대사령부 구치소에서 고문을 당하다 이듬해인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두고 순국했다. 그가 남긴 시 <청포도>, <교목>, <절정>, <광야> 등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안동에는 <이육사문학관>이 건립되어 있다.



베이징 왕푸징 소재 일본군 헌병대사령부 옛 건물



구 일본군 헌병대사령부 부지 내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세계역사연구소



이육사 열사가 순국한 일본군 헌병대사령부  
부속 구치소 옛 건물

구치소 건물 맞은 편에는 청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음(윤황 원장 <청포도> 시 낭독)



## ② 베이징 중관촌(中關村) 창업거리 / 6월 6일(오후)

- 위치: 베이징 중관촌 서북쪽
- 베이징 창업거리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관촌 내에 위치한다. 중관촌 주위에는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등 중국의 우수 대학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월스트리트 처럼 금융거리가 있어 중국에서도 가장 혁신산업이 많이 탄생하는 지역이다. 얼마 전 전자 업계의 새로운 스타가 된 샤오미(小米)도 이곳에서 창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 베이징 창업거리는 원래 서점이 많아 서점거리로 불리었으나 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해 종이 책시장이 점점 쇠퇴하며 문을 닫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에서 이곳을 창업거리로 만들어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 지금은 중국 최고의 혁신센터로 자리 잡았다.
- 창업거리는 규모가 엄청 크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거리는 아니었다. 대신 아기자기한 가게들과 아담한 서점과 카페들이 많아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적합한 공간이다. 또한 지금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초창기 창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도 있고 창업을 위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운영되고 있다.
- 중국은 현재 하루에도 수십 만 개의 회사가 창업되고 또 그만큼의 회사가 실패한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청년들의 창업 열풍은 대단하다고 한다. 창업 여건으로만 보면 우리보다 중국이 앞선 현실이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있는 중국의 창업 정책과 사회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학습이 필요하다.



베이징 창업거리 안내조형물



베이징 창업거리



베이징 창업정책 소개 진열관

베이징 창업거리 내 북카페



베이징 창업거리 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혁신센터



한국혁신센터 내 한국혁신산업 안내물

## [부록] 중국방문 명함 정리(하북성사회과학원)

소속 및 직위	이름	연락처	이메일
원장	康振海		
부원장	劉月	13931846652	swjstly@163.com
부원장	彭建强	13503336170	peng212008@sina.com
외사판공실 주임	선이등		
외사판공실 부주임	李建偉	13933115275	lijianwei75@163.com
경제연구소 소장	陳璐	13331381107	chenlu200491@yahoo.com.cn
농촌경제연구소 소장	睦興增		
항일전쟁사연구중심 부주임	王春蕊		